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우리 당의 마이크, 나팔수와 같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청년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제들을 취급한 기쁨진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할데 대한 과업들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루적인 예술활동을 맹렬히 벌임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을 맞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9일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들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가 인사들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흥도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 숭유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경축 제1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떠세우시였으며 한없이 고매한 덕망과 정력적인 령도로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과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

과 이브라힘 만투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8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나이지리아 령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령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말이 띄여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의의 정을 표시하였다.

9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는 주제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그리움과 흥도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9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는 주제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그리움과 흥도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띄여져 있었다. 군중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총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본사기자